

## 본당 소식

2024년 10월 교황님 기도지향 : '공동 사명'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전,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 밀라노 한인성당 성가대 오페라갈라 음악회
  - 이번 음악회를 준비해주신 성가대분들과 도움 주신 사목위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모임/회의
  - 복사단 전체 교육: 오늘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 창세기 성서모임: 11월 3일 미사 후 사제관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박건욱 레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61,11€ • 교무금 00,00€

### 전례 성가

입당 :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498 (예수여 기리리다),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파견 : 270 (로사리오의 기도)

###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27일)	다음 주일(11월 3일)
1독서: 박건욱 레오	1독서: 이민찬 비오
2독서: 이소현 엠마	2독서: 윤지영 베레나
복 사: 안태오 마태오, 안태리 소화데레사	복 사: 강윤이 스텔라, 강윤아 헬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2024년 10월 27일 (녹) 연중 제30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7-9)

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8 내가 이제 그들을 복역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  
 아이를 뱀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 제2독서 (히브리서 5,1-6)

1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2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4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6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  
 셧네. ◎

### 복음 (마르코 10,46-52)

그 무렵 46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48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50 그는 걸음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51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가르침 대로 곧은길을 걸으며  
 본보기가 되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정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  
 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감옥에 갇힌 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 주시고, 출소자들과 범죄의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주신 본모습을 온전히 가꾸며,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